

국비지원 끊긴 정보화마을... 활성화 한계

정부 올해 관리자 육성사업 지원 중단에 지자체 '난감' 제주시 7곳 매출 지난해보다 줄고 지정 반납 사례도

정부가 올해부터 정보화마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보화마을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 콘텐츠를 구축해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을이다.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와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달 현재 제주시 관내 정보화마을은 총 7개(영평·갑남·저지·우도·추자·도두·상명)이다. 이들 마을은 인터넷 회선, 마을 정보센터 구축 등 정보화 기반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각 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등 농촌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황금향, 한라봉, 레드향, 우도땅콩, 참굴비, 고사리, 고등어, 자라젓 등 제주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

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을 중단했다.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은 IT전문가들이 정보화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판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부터 지방비만 1억여원을 투입해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고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억4000만원이었으나 올해 6월말 기준 84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와흘 정보화마을은

올해 정보화마을을 반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보화마을은 농어촌 주민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증대시키는 IT를 활용한 농어촌 개발 모델로 각 마을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올해부터 중단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정보화마을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특산물을 판매·홍보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전국 정보화마을 온라인쇼핑몰인 인빌쇼핑(www.invil.com)에서도 추석대전 행사를 진행 중이다. 고대리기자

제2공항 공개토론회, 어떤 내용 오겠나

"지금이 적기" VS "공론화 먼저" 찬반 평행선... 입장차만 재확인

2차 토론회 내달 4일 예정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펼쳤다. 제주도 측은 제2공항을 놓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라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도민의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시작점"이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해 "엇갈린 시선"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켰다.

제2공항을 주제로 한 1차 TV 공개토론회는 28일 오후 7시10분부터 80분간 KBS제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본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생중계했다.

제주도 측에서는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관광학 박사)와 이성용 제주연구원 연구위원(도시공학박사)이, 반대 측에서는 문상빈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참석했다.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 측은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상태를 설명하며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고, 반대 측은 과다 예측에 따른 잘못된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제주공항 터미널도 계속 확장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항은 최소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문상빈 위원장은 "2040년을 지나서도 계속 늘어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 변화 요인을 충분히 봐야 한다. 과다하게 예측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항입지 선정 타당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김의근 대표이사는 "철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문상빈 정책위원장은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대안인 이견이 첨예했다. 제주도 측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기존 논의를 덮어버리는 주제"라고 반박했다.

이성용 연구위원은 "도민의 공감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도민들이 먼저 참여하는 내용을 설정하는 등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제2공항을 성산에 짓는다고 기본적으로 확정하고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기존 사회적 과제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2차 TV공개토론회는 오는 9월 4일 오후 7시10분 KBS제주 방송국에서 진행된다. 이날 방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박찬식 상황실장이 1대1 토론으로 진행한다. 이소진기자

제주시 추석 나눔문화운동

제주시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격려하는 등 '2019년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맞이 나눔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문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주민 1만5508가구와 사회복지시설 92개소 3332명이 대상이다. 제주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에 34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시설업소자와 종사자를 격려하는 물론 제주시 관내 주거취약가구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시 공무원은 읍면동별 1:1 결연을 맺은 저소득 1549가구를 방문해 3098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전달, 훈훈한 추석 명절 보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대리기자



분주한 어판장 29일 제주시수협 어판장에서 어민들이 지난밤 제주 근해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고등어를 크기로 선별하고 있다. 강희민기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는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기존 환산율 4.17 → 2.08%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29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시행으로 2017년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이 완전 폐지됐다. 지난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만 30세 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 또는 시설 퇴소(보호종료)한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도 2017년 1만5462명, 2018년 1만6386명, 2019년 7월 말기준 1만705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을 4.17%에서 대폭 낮춘 2.08%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통합조사를 통해 내달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시정 정보, 이젠 '톡'으로" 서귀포시, 시스템 구축 운영

서귀포시가 시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와 민원 안내를 위해 일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발송이 가능한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9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는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문자발송 서비스와 함께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 친구톡'을 함께 사용할

수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한 시책 홍보시 이미지나 장문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제약이 있어 충분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자 발송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담도 매년 늘어났서 추진됐다.

'친구톡'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서귀포시청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로 등록한 이용자들에게 각종 행사·축제정보 등 비정형화된 정보를 보내는 서비스다. 문미숙기자

제19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회호대회 (현장회호)

조선후기 명필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추사체 완결지 및 불후의 명작 세한도의 탄생지로서 그의 순결한 예술정신을 기리고 제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을 근간으로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19회 전국추사서예문인화회호대회 (현장회호)를 개최합니다.

- 1. 참가부문 : 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 2. 작품규격
한문, 한글, 문인화: 70×135cm(전지), 35×135cm(2절지), 서각: 가로70×140cm이내
- 3. 참가신청 및 문의
-원서교부 및 접수: 2019년 9월 23일(월)~9월 27일(금)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 신청(원서: 본 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다운로드) Fax, 064)744-4958
-문 의: (사)제주특별자치도서예학회, 제주시 오남로 6길 24(2층) ☎(064)744-4959, 010-2087-6446
- 4. 출 품 료 : 없음(참가자에게 기념품 증정)
- 5. 행사(현장회호) 일시
- 일 시: 2019년 9월 29일(일) 오전 10시-11시30분
- 장 소: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초등학교
- 6. 준 비 물
벼루, 먹, 붓, 서진, 깔개, 도장 등 (*화선지는 현장에서 배부함)
- 7. 명 제 (*문인화, 서각은 명제 자유)
 - 한문명제
 - 1) 草衣老衲墨參禪(초의노납묵참선) 燈影心心墨影圓(등영심심묵영원) 不剪燈花留一轉(부전등화유일전) 天然擊出火中蓮(천연경출화중연)
 - 2) 碧花無數出塔頭(벽화무수출계두) 占斷山家第一秋(점단산가제일추) 榴後菊前容續玩(유후국전용속완) 壯元紅是竝風流(장원홍시병풍류)
 - 3) 西風過家來(서풍과가래) 東風過我去(동풍과아가) 只聞風來聲(지문풍래성) 不見風起處(불견풍기처)
 - 4) 家鄉八百里(가향팔백리) 晴雨無增損(청우무증손) 晴日思如近(청일사여근) 雨日思如遠(우일사여원)
 - 5) 籬落三更猛虎來(리낙삼경맹호래) 萬山寥寂一聲雷(만산요적일성뢰)
 - 6) 小溪寒柳有輕風(소계서류유경풍) 秋入書樓曉夢中(추입서루효몽중)

- 한글명제
 - 1) 초의란 늙은 스님이 먹에서 참선하여 등 그림자 심심에 먹 그림자 등글었네 등 불꽃 베넬세라 그대로 한 번 도니 천연스런 연꽃이 불 속에서 솟아나네
 - 2) 이끼꽃 수도 없이 맺들머리 솟아나니 산 집의 제일 가을 짐작하고 남겼구만 석류 뒤 국꽃 앞에 구경거리 잇따르니 장원홍 저게 바로 풍류를 아꼈네
 - 3) 서풍은 집을 지나서 오고 동풍은 나를 지나서 가네 바람 오는 소리만 들릴 뿐 바람 이는 곳은 볼 수가 없어
 - 4) 고향이 예서 팔백 리나 되어 개거나 비오거나 그제 거거로되 갠 날은 왠지 가깝다 싶고 비오는 날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 5) 삼경 밤 울타리에 사나운 범 들어와 우레 같은 한 소리에 온 산중이 고요되라
 - 6) 작은 시내 시든 버들 산들버들 일어나니 서재의 새벽꿈에 가을 기운 들어오네
- 8. 시상내용
 - 종합 대상(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패 및 상금 3백만원
 - 부문별(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 대상(4명): 서귀포시장 상장 및 상금 1백만원
 - 우수상(한문, 한글, 문인화, 서각)(8명): 한국예총제주도연회회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특선: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이사장 상장
 -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이사장 상장
- 9. 심사발표
2019년 10월 1일(화) 본 학회 카페(cafe.daum.net/jejudoshufa) 및 개별통보
시상식: 2019년 11월 2일(토) 오후 5시
*상장 및 작품은 전시 마지막 날까지 모두 찾아가시고, 이후는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10. 전 시
2019년 11월 2일(토) ~ 7일(목)까지 문예회관1,2전시실
*특선 이상 작품과 초대작가 작품이 함께 전시.(표구버는 본인 부담, 미표구버는 입선 처리함)

▶초대작가제도: 소정의 점수(15점)를 이수하면 초대작가로 추대함(종합대상8,대상6,우수4,특선3,입선1)

- 주 최 : (사)제주특별자치도 서예학회
- 주 관 : 제19회 전국추사 서예문인화대전 운영위원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회

* 본 회오대회 당일(9월29일)에 보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행사가 있어 교통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차량은 추사적거리 주차장에 주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산물 재배 및 유통컨설팅 무료 교육 / 수강생모집 [제주임산물 소득증대 기반강화 지원사업]

조합원과 임업인 및 귀농귀산촌인등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제주임산물의 재배교육 및 임업정보 제공, 임산물 가공 유통·경영컨설팅 교육을 통해 임산물 생산 우수사례 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본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19년 9월 ~ 10월
 - 교육인원: 각 과목별 40명(선착순 모집, 중복신청 가능)
 - 수 강 료 : 무료
 - 교육장소 : 제주시산림조합(제주시 일주서로 7815)
 - 휴림 교육장 (제주시 애월읍 광명리서길 40)
- ◆ 교육과정 프로그램 (9월 교육과정)

날짜	회차	강의내용	강의시간
9/5 (목)	1	기계를, 예초기 사용 및 관리 이론	09시-12시
	2	기계를, 예초기 사용 및 관리 실습	14시-17시
9/6 (금)	3	식물의 기초	09시-12시
	4	식물의 기초	14시-17시
9/19 (목)	5	제주특용약초 소개 및 재배 교육	09시-12시
	6	한라산 자생버섯 종류 및 특장 소개	14시-17시
9/20 (금)	7	표고 원목 재배 방법 이론	09시-12시
	8	표고 톱밥배지 재배 방법 이론	14시-17시
9/26 (목)	9	표고원목 재배 방법 (견학)	09시-12시
	10	표고 톱밥배지 재배 방법 (견학)	14시-17시
9/27 (금)	11	야생화, 조경수의 이해와 재배 방법	09시-12시
	12	식물의 병 진단과 방제	14시-17시

* 세부 교육내용은 홈페이지(http://jejusanjoo.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진, 교육과목 및 일정은 교육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방문접수, 전화접수, FAX접수(신청서서식 홈페이지 참고)

sj 제주시산림조합

교육 문의 제주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64)742-4883, 064)743-4883, FAX 064)744-4883